

'검은 피카소' 장 미셀 바스키아 회고전

국제갤러리서 3월 31일까지

'낙서도 예술'로 등극시킨 장 미셀 바스키아(1960~1988)가 있다. 그는 '수프 강통도 예술'로 끌어올린 앤디 워홀과 세계 현대미술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작가다.

지난해 세계 경매 시장에 출품된 바스키아의 작품은 총 90점. 이 중 78점이 팔려 낙찰률 87%, 낙찰 총액 1억6144만달러(약 1700억원)를 기록했다. 1981년에 제작된 2m 크기의 '무제'는 지난해 11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2540만달러에 팔려 자신의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다.

바스키아의 수식어는 '검은 피카소'. 80년대 미국 미술계를 풍미한 그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 없는 천재 미술가로 꼽힌다.

7세 때 교통사고로 비장을 들어낸 것은 화가가 될 운명이었다. 엄마는 병원에 있는 그에게 의대생이 보는 '그레이의 해부학' 책을 선물했다. 이후 다양한 해부학 서적들을 탐독했고 그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과 폴리처의 예술적 해부학의 내장 기관 드로잉 이미지들을 회화에 차용했다. 해부학은 전통적인 화법에 구속 받지 않고 신체 여러 부위를 그려낸 그의 그림



해부학에 영향받은 장 미셀바스키아의 '무제' (1982).

의 원천이다.

흑인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자란 까닭에 '저항 정신'이 강했다. 자전적 이야기나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야구선수 행크 애런, 음악가 찰리 파커 같은 흑인 영웅,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비판 등의 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민자 가정의 혼혈아로 태어난 그는 코카인 중독으로 27세에 요절했다.

장 미셀 바스키아의 천재적인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회고전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거친 붓질, 화려한 색감 등 그가 왜 '검은 피카소'로 불리는지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3월31일까지. (02)735-8449 박현주 기자